

해방기 시 동인지 『죽순』의 위상과 『전선시첩』으로의 이동

박 용 찬*

차 례

1. 머리말
2. 죽순시인구락부와 『죽순』의 탄생
3. 『죽순』의 입지(立地)와 매체 전략
4. 『죽순』 이후, 그리고 『전선시첩』
5. 맺음말

국문초록

『죽순』은 1946년 창간되어 해방 4년 동안 12집이나 발간되었으며, 1979년 봄 복간호를 낸 이후에도 현재까지 발행을 계속하고 있는 대구 지역의 대표적 시 동인지이다. 『죽순』은 중앙과 대타적인 지점에서 지역 문학의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해방기 대구지역의 시문학에 대한 열망을 제대로 수용해 나간 매체였다. 본고에서는 해방기에 발간된 『죽순』을 대상으로 죽순시인구락부와 『죽순』지의 탄생과정, 시 동인지로서 『죽순』이 서 있는 자리와 매체적 전략, 『죽순』 이후 동인들이 전선문단으로 이동해 가는 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죽순』은 이윤수, 이호우, 박목월 등 대구지역 시인들 외에 유치환, 김춘수, 조지훈, 박두진, 설창수, 조향

*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등 대구 바깥의 유명 시인들도 참가시켜 필진의 위상을 높였다.

『죽순』은 출발부터 좌익 진영과 거리를 두고 출발하였는데, 『죽순』에 수록된 시나 시론을 통해 『죽순』이 크게 순수시나 ‘민족시’의 큰 자장 안에 머무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죽순』의 경우 순수시를 지향한다는 것 외에 동인들을 묶어줄 뚜렷한 이념이나 모토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것이 제한된 필진을 넘어 외부 필진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게 하는 기능을 하기도 했지만 매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지역 매체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죽순』은 다양한 기획과 편집전략을 구사하였다. 매체전략으로는 첫째, 신인추천제를 실시하여 김요섭, 최계락, 천상병, 윤운강 등의 시인을 등단시켰고, 둘째, 일반 문학지망생과 학생들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일반시단과 학생시단란을 설치했으며, 셋째, 지역문인의 표상화 작업을 시도하여 이상화 시비 건립과 상화시비 특집호를 발간했으며, 넷째, 시조에 대한 관심과 시조 발표 지면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한국전쟁기로 접어들면서 『죽순』 동인들은 전선매체로 이동해 가는데, 특히 문총구국대 경북지대의 이름으로 나온 『전선시첩』 2집은 『죽순』의 전시판 매체라 할 수 있었다. 죽순시인구락부의 대표였던 이윤수가 『전선시첩』 2집의 발간 주체로 원고 수합, 편집, 「후기」까지 관여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증빙해 준다. 『전선시첩』에 실린 시들은 순수시를 지향했던 시인들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전선시로 이동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제어 : 죽순, 죽순시인구락부, 매체 전략, 지역문학, 문학동인지, 대구, 표상, 순수시, 전선시첩

1. 머리말

해방 직후 대구지역 시문학 매체인 『죽순』에 대한 연구는 그 호명 빈도에 비해 아직 그 접근이 소극한 상태이다. 그 이유로 해방의 열기 속에 언론, 출판, 문학, 미술, 음악 등 모든 문화예술이 서울로 향했던 서울 중심주의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문학이나 지역에서 발간된 문학매체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죽순』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발간된 매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죽순』이 가진 위상에 비해 연구가 지나치게 소홀하게 이루어졌던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들어 다원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중앙과 대타적 관계에 놓인 지역문학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지역문학의 제 현황과 정체성을 밝혀 보려는 연구가 부상되고 있다. 지역문학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 대상이 되는 실물 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자료들은 지역문학의 실상과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지역문학 연구의 주요 자산이다. 그런데 지역에서 발간된 작품집이나 잡지, 동인지, 신문 등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해방기 대구지역에서 발간된 문학매체로는 『건국공론』, 『무궁화』, 『새싹』, 『아동』, 『죽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자료의 완전한 수합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다행히도 해방기에 발간된 『죽순』은 그 전모가 노정(露呈)되어 제대로 된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죽순』은 지역의 문학매체로는 특이하게 해방 4년 동안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발간된 시지(詩誌)이다. 해방기의 잡지나 동인지의 경우 창간호가 중간호가 되거나, 아니면 2, 3호 정도로 단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죽순』은 1946년 5월 1월 창간호부터 1949년 7월까지 11집이 발간되었다. 그 중간인 1947년 4월에 발간된 임시중간호까지 더하면 해방기에 『죽순』은 도합 12권이나 발행된 셈이다. 12권이나 되는 시 동인지를 격동의 시기인 해방기 내내, 그것도 중앙이 아닌 지역에서 발간

했다는 것은 『죽순』이 나름 문학 매체로서의 로컬리티를 갖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죽순』에 대한 연구는 『죽순』 동인에 대한 개괄적 소개 내지 수록 작품의 인상비평이나 개별 시인의 작품 발표지로서 『죽순』지가 부각되다가¹⁾ 『죽순』에 실린 시론과 시를 통해 『죽순』이 가진 문학적 의미를 탐색한 연구,²⁾ 『죽순』의 지역성을 대상으로 한 스토리텔링 가능성에 대한 접근³⁾ 등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죽순』에 대한 논의 대부분이 『죽순』 참가 문인들의 자부(自負)와 회고 중심으로 구성되거나 부분적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 『죽순』의 전모와 특성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고가 택한 방법은 인적 자원인 죽순시인구락부 동인들과 그들이 만들어 낸 물적 표상인 매체로서의 『죽순』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본고는 해방기 죽순시인구락부와 『죽순』의 탄생 과정, 시 동인지로서 『죽순』이 서 있는 자리와 매체적 전략, 『죽순』 이후 『죽순』 동인들이 전선매체로 이동해 가는 과정 등을 논의의 틀로 삼았다.

2. 죽순시인구락부와 『죽순』의 탄생

『죽순』지의 발간 주체는 대구 태생의 석우(石牛) 이윤수(李潤守)이다.

-
- 1) 오양호, 「『죽순』의 시사적 의의」, 『죽순』 16, 죽순시사, 1981, 190-194쪽.
송영목, 「해방기 『죽순』지의 시세계」, 『비평문학』 7, 한국비평문학회, 1993, 102-127쪽.
노춘기, 「해방기 조향의 시적 지향-동인지 『낭만파』와 『죽순』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48, 2015, 261-288쪽.
 - 2) 강호정, 「해방기 동인지 『죽순』 연구」, 『한국문학논총』 69, 한국문학회, 2015, 127-157쪽.
 - 3) 강민희, 「문학동인지의 지역성과 스토리텔링 가능성 연구 - 대구 최초의 시전문 동인지 『죽순』을 중심으로」, 『어문학』 135, 한국어문학회, 2017, 185-208쪽.

이운수는 해방 직후 죽순시인구락부의 대표로서 『죽순』 창간호부터 11집까지 손수 원고를 모으고 편집, 배포까지 담당한 인물이다. 1935년 일본 와세다(早稻田) 대학 상과를 수학한 이운수는 “일본의 시 동인지 『일본시단(日本詩壇)』에 시 「청언의 노래」(1937), 「크리스머스의 아침」(1937-38), 「현대수신」(1937-38), 「영접의 청춘」(1937-38) 등을 발표”⁴⁾ 하면서 “계간 시동인지, 『시문학 연구』 동인(37-38)으로 활동”⁵⁾ 하기도 하였다. 1960년 동아출판사에서 36편의 시가 실린 첫 시집 『인간은실』을 펴낸 바 있다. 그는 해방 직후 대구에서 시계포 명금당(名金堂)을 운영하면서, 죽순시인구락부(竹筍詩人俱樂部) 결성 및 『죽순』지 발간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운수의 명금당은 죽순시인구락부 동인들이 모이던 장소요, 『죽순』지가 탄생한 공간이기도 하다. 죽순시인구락부의 창립은 1945년 10월 26일이며, 시지 『죽순』의 창간일은 1946년 5월 1일이다. 이운수의 기억에 기대어 죽순시인구락부의 결성과 『죽순』지의 탄생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필자 집에서 시부원(詩部員)들은 45년 26일 오후 1시경 전원이 회동, 독립된 새로운 시인회를 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찬동한 사람이 김상수(金尙洙)였으며, 여타 사람들도 뒤따라 여기 찬동했다. ‘죽순’이 태동하기 시작된 것이다. 명제는 각자 창명제출(創名提出)키로 합의, 그 결과 필자가 제출한 ‘죽순’이 결정되어 그날로부터 ‘죽순시인구락부’가 조국 광복의 푸른 하늘 아래 되찾은 언어로써 이 고장의 새로운 시문학의 꿈을 키우기 위해 탄생된 것이다.……45년 9월 8일 미군 서울 진주 수일 후까지도 그야말로 무정부상태였을뿐더러 갑자기 모든 면이 중단되었던 그런 상황에서 용지를 구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다. 그런 극심한 용지난 속인 45년 11월 창간 예정이던 동인지 『죽순』은 산고 끝에 46년 5월 1일 창간호가 그것도 모조지 46배판(46페이지)으로 호화롭게 발

4) 문덕수, 『세계문예대사전』(하), 성문각, 1975, 1658쪽. 시집 『인간은실』에 의하면 시 「현대수신」은 1938년 3월 3일, 「원수룰다」는 1938년 10월 3일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운수, 『인간은실』, 동아출판사, 1960, 24-25쪽, 90-91쪽 참고.

5) 이운수 편, 『전선시첩』, 학문사, 1984, 281쪽. 자신이 쓴 수록시인 프로필.

간되었다. 시 동인지로서는 전국 처음이었다. 표지화는 화가 김용조(金龍祚)의 조카 김명수(金命守, 제23회 선전 입선)가 화필을 들었다. 후면 표지는 필자가 꾸몄다. 『죽순』 창간호가 발간되자 일면 부지인(不知人)으로부터 격려문과 축화의 전화가 오기도 한 반면, 좌익계 신문 민성일보(民聲日報)의 비난기사 게재와 문맹(文盟) 계열의 파상적 협박장 공세 등이 있었다. 『죽순』 창간호 출간의 그 기쁨은 사라지고 판매대금의 회수가 되지 않아 제2집 발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은 종간 시까지 계속되었음은 물론이다. 여기서 넘어질 순 없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속해야 되겠다는 신념이 되려 굳어져 갔다. 문전걸식하듯 찬조광고 받으러 돌아다닌 결과 다시 제2집의 발간을 보게 되었다. 이때 미군정이 들어서고 나서 출판물허가제가 실시됨에 따라 『죽순』도 46년 7월 15일자 허가번호 224호를 받아 제2집부터 간수하기 편리한 국판(菊版)으로 아담하게 꾸며내기로 했다. 표지 및 제자(題字)와 후면 광고에 이르기까지 영남일보의 조병진(趙炳鎭)이 화료(畫料) 한 푼없이 6집까지(작고할 때까지) 성실히 도와서 함께 시문학을 하지 않았다뿐 잊을 수 없는 동인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 화가요 스포츠맨이요 더욱 호남아니 그가 뜻하지 못한 원인으로 요절했음은 참으로 애석할 따름이다. 그가 작고한 후 궁여지책으로 제7집 앞뒤 표지를 필자가 아주 서툴게 꾸며내기도 했으니 부끄러운 일이다. 당시의 화가는 극소한 수삼인이었을 때다.⁶⁾

위의 회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죽순』이 상당 부분 해방 직후 대구에서 시계점 ‘명금당(名金堂)’을 운영하던 이운수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발간되었다는 점이다. 죽순시인구락부 소재지(所在地)는 3집까지는 대구시 본정 2정목 32번지로, 4집부터는 대구시 서문로 2가 32번지로 되어 있다.⁷⁾ 전화번호와 번지가 동일한 것을 보면, 그 사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죽순시인

6) 이운수, 『광복30년 경북문단점철(기1)』, 『죽순』 복간호, 1979. 봄, 194쪽.

7) 『죽순』 2(1946. 8), 50쪽의 광고를 보면 ‘명금당시계점, 대구부 본정 2정목 32, 전화 2039번’으로 되어 있어, 이것이 광고와 같은 면에 있는 죽순회원주소록의 이운수 주소와 일치한다.

구락부의 근거지는 여전히 이윤수가 운영하는 명금당시계점임을 보여준다. 이윤수는 죽순시인구락부의 대표로 실제 원고를 수합·편집하고, 출판·배부까지 담당한 인물이다.⁸⁾ 둘째, 위의 글은 『죽순』의 표지 장정자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창간호 표지화를 그린 화가는 대구 초기 서양화가 김용조(金龍祚)의 조카였던 김명수(金命守, 제23회 선전 입선)였으며, 2집부터 6집까지 표지화를 담당한 화가는 당시 영남일부에 근무하고 있던 조병진(趙炳鎭)이었다. 이윤수는 이들 화가들을 교섭하는 한편, 뒷표지를 직접 꾸미거나 7집의 경우는 앞표지의 장정을 직접 시도하기도 하였다. 셋째, 『죽순』이 발간되자마자 좌익으로부터 집중적 견제를 받았다는 점이다. 대구지역 좌익신문이었던 민성일보(民聲日報)의 비난 기사와 조선문학가동맹의 ‘파상적 협박장 공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죽순』은 처음부터 순수시지를 표방하면서 좌익과 대립적 입장에서 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죽순』은 창간호에 시만 17편(1부 6편, 2부 4편, 3부 7편)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죽순』이 처음부터 시 중심의 동인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태고의 신화 앞에 수녀가 무릎 꿇는 밤
백두산 천지서 춤추는 별들은
이미
천사가 피여논 고은 이불 속에 숨었다

부형이 산기슭에 우뚝마자 끝나고
기척없이 성근 대숲에 끼인
무거운 안개의 문을
태양이 밀고 열었다

8) 이윤수는 1979년 『죽순』 복간 이후에도 『죽순』지 발간을 주도하였으며, 『죽순』지가 처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다. 상화시비 탁본사업, 『전선시첩』 발간, 『죽순』 영구 구독회원 모집, 『죽순』지 합본 발간 시도 등이 그것이다.

가날픈 노을에 잠긴 카-텐을 걷고
 재롱스런 죽순들은 어여뻐
 병아리 가슴처럼
 파이란 꿈을 안고
 끝없는 창공을 향하여
 대기를 호흡한다.⁹⁾

이윤수는 창간호에 『창간사』를 대신하여 쓴 시 『죽순』, 본문에 발표한 시 『귀향』, ‘이생(李生)’이란 필명으로 쓴 『편집후기』까지 필진과 편집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4·6배판 크기의 표지에 큼지막하게 그려낸 김명수의 『죽순』 표지화까지 더하면 창간호는 ‘죽순’으로 시작되고 ‘죽순’으로 끝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죽순』 첫 면에 실린 시 『죽순』은 창간호 뒷면에 실린 『편집후기』의 내용을 시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시 『죽순』은 해방이 가져온 기쁨과 환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죽순의 표상화를 통해 새나라 문학의 꿈과 희망을 표현해 보이고자 하였다. 해방은 자유가 억압된 “무거운 안개의 문”을 “태양”이 밀고 연 상황과 비견된다. 시인이 노래하고자 하는 것은 해방된 조국에서 “재롱스런 죽순”들이 “끝없는 창공”을 향해 “대기를 호흡”할 수 있는 감격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다. 『편집후기』에 의하면 ‘죽순’은 오랫동안 “부르지 못한 노래”를 해방과 함께 힘차게 불러보고자 하는 대구 지역 시인들이 가진 시문학의 열정이 응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눈이 불 뚫고”, “어린 죽순”들이 “뽀족히 왕(王)대의 꿈을 안고”¹⁰⁾ 나아갈 수

9) 이윤수, 『죽순』, 『죽순』 창간호, 죽순시인구락부, 1946. 5, 2-3쪽.

10) 이생(李生), 『편집후기』, 『죽순』 창간호, 죽순시인구락부, 1946. 5, 46쪽. 이윤수가 쓴 아래의 『편집후기』를 통해 『죽순』지를 탄생시킨 죽순시인구락부 회원들의 열망을 읽어낼 수 있다.

“눈이 나리어 대숲에 눈이 나리어 대(竹)는 더욱 푸르르고 항상 마디 마디 그 절기(節氣) 맺는다. 눈이 불 뚫고 어린 죽순 하나 뽀족히 왕(王)대의 꿈을 안고 오래인 부르지 못한 노래를 하늘이 베푼 이땅의 해방과 함께 힘차게 불러볼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죽순이다. 꽃핀 산넘어 어매 찾는 송아지 울음 흘러오는 때

있는 시문학의 거소(居所)를 『죽순』을 통해 죽순시인구락부 회원들은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윤수를 중심으로 모여든 죽순시인구락부 회원들의 면면을 살펴보기 위해서 『죽순』 2집에 실린 『죽순회원 주소록』을 참고할 수 있다.¹¹⁾ 2집까지 가담한 죽순시인구락부의 회원으로는 박목월, 이호우, 최해룡, 이웅창, 김동사, 김병욱, 김상수, 최무영, 이병화, 정신영, 이재춘, 이갑득, 백종택, 김한영, 이병휘, 최양웅, 이영도, 오란숙, 박영호, 박영식, 이승자, 류시엽, 이윤수 등 23명이다. 이들 중 시인으로서의 상징자본을 갖고 있는 작가로는 이호우, 박목월 정도를 들 수 있고, 그 외 이윤수, 이웅창 등이 해방 이전의 매체에 몇몇 작품을 발표한 정도였다. 해방 직후 대구 지역의 시인지망생, 또는 시인들이 죽순시인구락부에 모여들었다고 하나 전국적 명망도를 가진 회원은 부족한 상태였다. 그래서 죽순시인구락부는 대구지역의 시인들을 중심으로 삼기는 하되, 대구지역 바깥의 시인들을 연계하여 죽순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1집과 3집에 부산의 청마 유치환 작품을 싣고, 이후 청마를 매개로 마산의 김춘수의 작품을 『죽순』지에 싣기도 하였다.¹²⁾ 이 당시 김춘수는 이미 마산에서 조향(趙鄕), 김수돈(金洙敦) 등과 『낭만파(浪漫派)』라는 동인지를 따로 내고 있었다.¹³⁾ 『죽순』지의 확장적 매체 전략은 마산의 김춘수를 넘

미저한 죽순을 출산하기됨은 감무량(感無量)이다. 대단한 일이기 때에 주체넘었고 그 얼마나 주저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의 자그마한 가슴에 타는 모닥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 문학예술인 한 조각인 시문학의 봉화가 될 까 하노니 시는 문학의 최초이고 최후에 것인 만큼 우리들은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자라 다만 문학예술로서 이땅에 이바지되고자 함은 우리들의 진실한 마음이다.”

11) 『죽순회원 주소록』, 『죽순』 2, 죽순시인구락부, 1946, 49-50쪽.

12) 김춘수, 『호우 윤수, 양 이씨(兩李氏)와 ‘죽순’』, 『죽순』 복간호, 1979. 봄, 106-107쪽 참고.

13) 『죽순』 6집의 말미에 실린 『낭만파』 4집의 광고를 보면 『죽순』과 『낭만파』의 필진이 상당 부분 겹쳐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간의 교류가 밀접했음을 알 수 있다. 『낭만파』 4집의 집필 동인은 김동리, 유치환, 김달진, 조지훈, 박두진, 조연현, 김수돈, 탁소성, 김동사, 이윤수, 이영도, 오란숙, 이승자, 김춘수, 이호우, 서

어, 진주에서 『영문(嶺文)』을 내고 있던 설창수(薛昌洙), 서울의 구상(具常) 시인까지 규합하게 만들었다. 죽순시인구락부가 순수시지라는 것 외에 뚜렷한 모토나 동인의식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명망 있는 기성시인과 신진 시인들을 포섭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목월의 다음 글은 죽순시인구락부의 초기 회합 모습을 소상히 보여주고 있다.

내가 대구로 이사한 며칠 후였다. 하루는 나보다는 나이가 두세 살 더 들어보이는 청년이 찾아 왔다. 그가 죽순회 대표 이운수 시인이었다. 그 당시에는 보기 힘든 경기용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이 인상 깊었다. 그의 안내로 죽순 동인들과 사귀게 되었다. 문장지 추천 시조시인 이호우씨를 비롯하여 그분의 매씨 이영도 여사, 일대(日大) 예술과 출신 최해룡(崔海龍)씨, 이승자(李崇子), 오란사(吳蘭斯) 씨 등 8~9명, 때로는 10여명씩 모이고 하였다. 때로 소설을 쓰는 김동사(金東史)도 참석하였다. 첫 회합은 1946년 정월. 명금당(名金堂, 이운수씨의 가게) 건너편에 있는 이씨 누남택 2층에서 가졌다. 각자 작품을 들고 와서 서로 돌려가며 읽고 소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그런대로 그야말로 문우들의 모임답게 진지하고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밤 가는 줄 몰랐다.¹⁴⁾

이 글은 이운수, 이호우, 박목월 등 10여명의 죽순시인구락부 동인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작품 품평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처음부터 뚜렷한 동인의식을 가졌다기보다 해방된 조국에서 문학을 한다는 기쁨이 이들을 “진지하고도 화기애애”하게 결속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와세다 대학 상과 출신으로 『일본시단』에 여러 편의 시를 발표한

정주, 조향이다. 이중 김동리, 김수돈, 탁소성, 서정주만 『죽순』지에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다. 광고 부분 『청년시인사회집 낭만파 4집』, 『죽순』 6, 죽순시인구락부, 1947. 10, 59쪽.

14) 박목월, 『조국 품에서 시를 쓰는 기쁨』, 『죽순』 복간호, 1979 봄, 98쪽.

바 있던 이윤수, 『문장』지 추천 시인이었던 박목월, 이호우 등이 처음부터 포진함으로써 『죽순』은 다른 지역의 군소 동인지들보다 인지도나 동인 구성면에서 비교적 우위에서 출발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부터 동요, 동시 창작에 주력하던 이응창(李應昌), 이호우의 누이였던 시조시인 이영도, 니혼대(日本大) 예술과 출신인 최해룡, 소설가 김동사, 시집 『산』(조선출판사, 1948)을 출간한 한솔 이효상, 대구로 내려와 경북여자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시집 『청시(靑柿)』(청색지사, 1940)를 펴낸 바 있던 율하 김달진 등도 동인에 참가함으로써 『죽순』은 시, 아동문학, 시조, 소설 등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로 구성되었다. 이외에도 유치환, 조향, 조연현, 김춘수, 박두진, 조지훈, 성기원, 이상로, 박화목, 김윤성, 구상, 윤곤강, 이해문, 이경순 등의 대구 지역 바깥의 인사까지 『죽순』지에 참가하였는데,¹⁵⁾ 이처럼 『죽순』지가 동원할 수 있는 필진의 외연은 상당히 넓은 편이었다. 『죽순』은 이윤수, 이호우, 이영도, 박목월, 김동사, 이응창, 최해룡, 이승자, 이효상, 김달진 등의 지역시인들이 구심점이 되고 대구 바깥의 많은 시인들이 감싸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죽순』을 감싸고 있던 대구 바깥의 유명 시인들이 ‘동인으로서의 연대의식을 가졌느냐는 의문’¹⁶⁾처럼 이들이 명확히 연대의식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다. 순수시를 지향한다는 이념은 공유하고 있었지만 이들을 강하게 묶어줄 수 있는 결속력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죽순』은 뒤로 갈수록 “범시단지(汎詩壇紙)적인 성격”¹⁷⁾을 띤 잡지에 근접한 순수시 동인지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한편 청록파 시인들의 『죽순』지 관여는 『죽순』 초기부터 참여하고 있던 박목월을 매개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은 일제말 정지용에 의한 『문장』지 추천작가들인데, 1946년 을유문화사에서

15) 『전국시인주소록 1』(『죽순』 7, 50-51쪽)과 『전국시인주소록 2』(『죽순』 10, 66쪽)에 의한 대구지역 거주 시인 아닌 시인들임.

16) 강호정, 『해방기 동인지 『죽순』 연구』, 『한국문학논총』 69, 2015. 4, 131쪽.

17) 문덕수 편, 『세계문예대사전』 하, 성문각, 1975, 1918쪽.

발간한 『청록집』 이후에는 시인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격상된 상태였다. 조지훈, 박두진의 가세에 『죽순』의 주요 동인이자 청록파 시인이었던 박목월이 매개적 역할을 했으리라는 것은 짐작 가능한 일이다. 박목월과 함께 죽순시인구락부를 이끌어가던 이호우 또한 『문장』지 추천작가였으므로, 이들 사이의 친연성은 매우 밀접했다고 할 수 있다. 박목월은 창간호에 시 「봄비」, 2집에 수필 「목월시화(木月詩話)」와 시 「홀로 꽃밭에 깨어 있었다」, 3집에 시 「송뢰(松籟)」를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4집에는 박두진이 시 「해의 노래」, 조지훈이 시 「빛을 찾아가는 길」을 투고하였다. 9집에 다시 박목월의 시 「강나룻배」, 조지훈의 시 「대금(大琴)」을, 10집에는 박두진의 시 「비둘기」, 조지훈의 시 「색시」, 박목월의 시 「보살」, 「초가삼간」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명망 있는 시인들이 『죽순』에 포진함으로써 해방기 문단에서 『죽순』이 어느 정도 작품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죽순』의 입지(立地)와 매체 전략

『죽순』지는 출발부터 좌익 진영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 『죽순』 창간호가 발간되자마자 대구지역 “좌익계 신문 민성일보(民聲日報)의 비난 기사 게재와 문맹(文盟) 계열의 과상적 협박장 공세”¹⁸⁾가 있었다는 이윤수의 언급은 『죽순』이 서 있는 자리를 잘 보여준다. 『죽순』에 수록된 시나 평론을 살펴보면 『죽순』이 크게 순수시나 ‘민족시’의 자장 안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죽순』은 시 동인지를 표방하고 있었기에 평론류 글은 많이 수록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실린 10편 정도의 시론류나 시평에 관한 글들¹⁹⁾은 대부분 좌익과 대립적 입장에서 순수시 내지 순

18) 이윤수, 「광복30년 경북문단점철(기1)」, 『죽순』 복간호, 1979. 봄, 194쪽.

19) 원고 모집의 「투고규정」(『죽순』 2, 1946. 8, 30쪽)에도 평론(시에 관한 것), 시,

수문학을 표방하고 있다.

평론류 글 중에는 『죽순』 동인이었던 김동사, 이윤수의 글이 먼저 주목된다. 김동사의 「민족의식과 문학」은 “무자각한 시류문인(時流文人)의 발호”²⁰⁾를 경계하면서, 시류(時流)에 휩쓸리지 않은 문학, 즉 “현 세대의 시속(時俗)에 경향되지 않는 영원성을 띤 문학”²¹⁾을 내세운다. 이러한 논조는 이어진 글 「진위의 시(是)와 비(非)」에서도 이어진다.

위(僞)가 생존할 수 있는 세계는 혼란의 세계이다. 진(眞)이 증명될 수 있는 세계는 인간이 윤리성을 상실치 않은 정당한 평화의 세계이다. 오늘날 혼란 속에서 잠입하여 외면으로 유아군자연(唯我君子然)하고 내면으로는 공리성(功利性)에 급급하여 호류성(狐類性)을 발휘하는 도배(徒輩)의 횡행은 그들이 문화일 때는 문자의 부스러기라도 저(咀)작한 만큼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²²⁾

김동사의 「민족의식과 문학」이나 「진위의 시와 비」 모두 해방 직후

소곡, 가요, 기타 시에 관한 것으로 투고종목을 제한하고 있다. 아래는 『죽순』에 수록된 평론류 글이다.

이윤수, 「시의 진실성」, 『죽순』 2, 죽순시인구락부, 1946. 8.

김동사, 「민족의식과 문학」, 『죽순』 3, 죽순시인구락부, 1946. 8.

이호우, 「시조의 본질」, 『죽순』 3, 죽순시인구락부, 1946. 9.

이윤수, 「시인과 시에 관하여」, 『죽순』 3, 죽순시인구락부, 1946. 9.

이윤수, 「하나의 에피로-구」, 『죽순』 4, 죽순시인구락부, 1947. 5.

김동사, 「진위(眞僞)의 시(詩)와 비(非)」, 『죽순』 4, 죽순시인구락부, 1947. 5.

조향, 「역사의 창조」, 『죽순』 6, 죽순시인구락부, 1947. 10.

조연현, 「시에 관한 노트」, 『죽순』 7, 죽순시인구락부, 1947. 12.

이윤수, 「퇴폐해가는 문화인들 - 주로 현 문단에의 공개서신」, 『죽순』 8집, 죽순시인구락부, 1948. 3.

한술, 「시」, 『죽순』 10, 죽순시인구락부, 1949. 4.

김동사, 「문학과 생활과 인간」, 『죽순』 10, 죽순시인구락부, 1949. 4.

김춘수, 「시, 시인에 대한 소묘」, 『죽순』 10, 죽순시인구락부, 1949. 4.

20) 김동사, 「민족의식과 문학」, 『죽순』 3, 1946. 12, 7쪽.

21) 김동사, 위의 글, 8쪽.

22) 김동사, 「진위의 시와 비」, 『죽순』 4, 1947. 5, 36쪽.

좌익문인들을 시류문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공리성에 입각한 문학은 혼란을 조장하는 거짓의 세계로 본다. 그렇다면 김동사가 주장하는 참다운 시는 무엇인가? 그는 “민족성을 고취함과 동시에 시의 본질인 예술성을 토대로 순수시에서 출발하여 민족시를 수립하는 것”²³⁾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김동사에 의하면 시대를 초월한 진정한 시인은 시류(時流)를 벗어나 예술성, 영원성, 민족성을 갖춘 시를 쓰는 시인이라고 규정된다.

이윤수 또한 “사고, 상상, 감수성의 예민한 활동”인 “내면적 경험”²⁴⁾을 중요시 여기며, 시가 표현하는 존재성과 그것의 영원성을 강조한다.

시가 표현하는 존재성은 영원적이며 그 존재가치는 시가 가진 표현된 말의 지성과 같은 가치만의 존속성을 가질 것이다. 영원한 시, 시대의 힘에도 기타 모든 힘에도 변화되지 않은 영원한 시, 이러한 시의 사상이 확립된 곳에서 시가 가진 긴 전통의 옥토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영원한 시라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시의 영원성만은 수세기를 지나도 노후하지 않고 새로운 샘물같이 쉴 새 없이 살아있는 한 기능이라고 본다. 이 영원성은 모든 것이 진화하는 데 있어 스스로 타는 피로써 생존하고 있다. 즉 우리들의 창조의 근원인 정신과 마음, 정열과 이성이 불타는 속에서 그 힘은 찬연히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²⁵⁾

시는 자기를 위하여만 살 것이다. 그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시에 있어 그 이상의 것을 욕망한다는 것은 금물이다. 자기의 인간을 수업하는 일념 하에 자기 가슴에 타는 불을 높이 들고 험하고 어두운 길을 점점히 전진할 것뿐이다. 거기서 인간성을 가진, 민족성을 가진 시신(詩神)을 만날 수 있다.²⁶⁾

“시인의 가슴에 타는 불과 시인의 눈물의 바다를 지나치는 모든 것이

23) 김동사, 위의 글, 37쪽.

24) 이윤수, 「시의 진실성」, 『죽순』 2, 1946. 8, 29쪽.

25) 이윤수, 「시인과 시에 관하여」, 『죽순』 3, 1946. 12, 27-28쪽.

26) 이윤수, 앞의 글,

순화되어, 지고(至高)한 진리에 도달”한다는 이운수의 이러한 시관은 시문학과 시인 박용철의 시론 『시문학 창간에 대하여』와 『시적변용에 대해서』를 연상시킨다. 박용철은 “시라는 것은 시인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한낱 존재”이며, 시란 “하나의 고처(高處)”²⁷⁾에 자리한다고 주장한다. 시를 하나의 ‘존재’로 보게 되면 시가 무엇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나 수단이 아니게 된다. 이는 시가 현실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자족적 실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운수가 지적한 “자기 가슴에 타는 불을 높이 들고 험하고 어두운 길을 점점이 전진할 것”이란 말도 박용철이 내세운 “심두(心頭)에 한 점 경경(耿耿)한 불”²⁸⁾과 별반 다르지 않다. 심두의 경경한 불꽃이 최고조로 오른 상태란 순수서정시가 가진 “가장 개인적이며 자신에게만 고유한 주관적 자아의 순간적 열화상태, 그리고 이로부터 비롯되는 정조를 표출하는 양식”²⁹⁾이기 때문이다. 이운수의 『시인과 시에 관하여』가 박용철의 『시적 변용에 대해서』와 제목의 형식이나 내용도 거의 유사함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박용철의 『시적 변용에 대해서』가 시문학과 시론을 대변하고 있다면 『죽순』지에 실린 이운수의 『시인과 시에 관하여』는 죽순시인구락부 동인들의 시에 관한 생각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므로 매체 『죽순』 또한 순수시지(純粹詩紙)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죽순』지의 이러한 성향은 대구 지역 외의 투고 필진이나 그들의 원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마산에서 김수돈, 김춘수와 함께 『낭만파』에 참가하고, 부산 동아대학 문리학과 교수이자 국립부산수산대학 강사로 출강³⁰⁾하기 시작한 조향(趙卿)은 『죽순』 5집에 시 『밀

27) 박용철, 『『시문학』 창간에 대하여』, 시문학사 편찬, 『박용철전집 제2권』, 동광당 서점, 1940, 142-143쪽.

28) 박용철, 『시적 변용에 대해서-서정시의 고고(孤高)한 길』, 『삼천리문학』 창간호, 삼천리사, 1938, 133쪽.

29) 정효구, 『1930년대 순수서정시 운동의 시대적 의미』, 『한국현대시사의 쟁점』, 시와시학사, 1991, 294-295쪽.

30) 조섭제, 『대학국어 현대국문학수』, 행문사, 1948, 표지 이력 참조.

누름때], 『과아란 항해』, 『죽순』 6집에 평론 『역사의 창조』와 시 『태백 산맥』을, 『죽순』 7집에 시 『진혼의 노래도 없이』, 『술잎으로 접치기』, 『죽순』 8집에 시조 『SANATORIUM』을 발표하였다. 이중 평론 『역사의 창조』에서 조항은 당시의 좌익의 거점이었던 ‘민주주의민족전선(民主主義民族戰線)’에서 사용하는 “예속적인 민족의 정의”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다. 민족이 ‘농민’과 ‘근로인민’으로만 구성되지 않으며, “유물제국주의(唯物帝國主義)의 사상 침략에서 우리들의 국토와 영혼을 지키자”³¹⁾는 직접적 구호로 좌익 측의 공세에 대응한다. 이러한 주장은 조선청년문학가협회의 논리와 부합한다. 이 당시 전국문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진보적 문학의 중심에서 있던 좌익 측의 조선문학가동맹에 대응한 단체는 전조선문필가협회였다. 그 중에도 가장 예각적 각을 세웠던 단체는 전조선문필가협회 산하의 조선청년문학가협회였다. 1947년 4월 당시 조선청년문학가협회의 회장은 김동리, 부회장은 유치환, 김달진이었고, 시부(詩部) 구성원은 “박두진, 조지훈, 서정주, 박목월, 유치환, 이한직, 양운한, 조인행”, 평론부 구성원은 “한혹구, 조연현, 곽종원, 표문태, 이정호, 이향, 민영식, 임궁재”³²⁾ 등이었다. 조선청년문학가협회(이하 청문협)의 회원으로 『죽순』에 시나 평론을 투고한 인물은 유치환,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김달진, 조연현 등이다. 이처럼 청문협(靑文協)의 회원 일부가 『죽순』에 작품을 투고하고 있다는 것, 이는 『죽순』이 서 있는 자리가 예술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내세우는 청문협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당시 청문협의 선두에서 좌익 측의 문학 이론 공세에 맞선 인물은 김동리, 조지훈, 조연현, 서정주 등이었다. 이중 조연현이 『죽순』 7집에 『시에 관한 노트』를 싣고 있음이 주목된다. 청문협 쪽에서 대구지역의 문학매체인 『죽순』지에 영향을 끼치려 하거나 관심을 준 정도가 미약했다는 지적³³⁾이 있으나 『죽순』이 조지훈 등이 주도한 청문협

31) 조항, 『역사의 창조』, 『죽순』 6, 죽순시인구락부, 1947. 10, 8-9쪽.

32) 권영민, 『해방 직후의 민족문학운동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25쪽.

33) 박민규, 『해방기 시론의 구도와 동력』, 서정시학, 1914, 269-270쪽.

의 순수시론의 큰 자장 안에 놓여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청문협이 대표 주자였던 조지훈은 순수시가 “경향시에 대한 정통시요, 순수시의 영역은 정치·종교·사회 어디에도 갈수 있는 무제한이나 다만 시가 되고 예술이 되는 것을 전제로 무제한이며, 시의 가능성은 그 출발점이 시에 있을 때뿐”³⁴⁾이라고 보며, “본질적으로 순수한 시인만이 개성의 자유를 옹호하고 인간성의 해방을 전취하는 혁명시인이며, 진실한 민족시인만이 운명과 역사의 공동체로서의 민족을 자각하고 정치적 해방을 절규하는 애국시인”³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가 된 다음 민족시도 세계시도 될 수 있다는 조지훈의 생각은 앞에서 살펴본 『죽순』 동인이었던 김동사가 거론했던 “예술성, 영원성, 민족성”이나, 조향의 ‘농민’과 ‘근로인민’으로만 구성되는 민족의 정의에 대한 거부감, 이운수의 ‘시의 영원성’, ‘인간성을 가진, 민족성을 가진 시신(詩神)’과 상통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죽순』에 실린 시론 내지 시들이 멀리는 시문학과 시인 박용철이 내세운 순수시론, 가까이는 해방 직후 청문협의 이론가였던 조지훈의 시론에 그 바탕을 두거나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죽순』은 지역 매체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기획과 편집전략을 구사하였다.

첫째, 신인 추천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현대문학사의 경우, 1920~30년대의 문예잡지였던 『조선문단』과 『문장』지가 작가들의 등단 제도로 신인추천제를 정착시킨 바 있다. 특히 『문장』은 명망 있는 고선위원(考選委員)들의 가담과 3회 추천제(나중 1회로 변경됨)란 방식을 통해 문학지망생들로부터 상당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다. 정지용(시 부문), 이태준(소설 부문), 이병기(시조 부문)가 『문장』지의 고선위원이었다. 이들은 그들이 가졌던 작가로서의 상징자본을 바탕으로 꼼꼼한 선후평(選後評)을 가함으로써, 신인들이 나아갈 문학의 방향성 내지 창작방

34) 조지훈, 『순수시의 지향 - 민족시를 위하여』, 『백민』 3권 2호, 1947. 3, 168쪽.

35) 조지훈, 위의 글, 167쪽.

법까지 지도하였다. 신인추천제는 일제강점기 『조선문단』, 『문장』을 거쳐 해방 직후 『문예』에 이르면서 신문사의 신춘문예와 함께 신진작가들의 등단 제도로 확고하게 자리잡게 된다. 해방기의 경우 대구지역에서 발간된 시 동인지 『죽순』이 1949년 8월 창간된 『문예』 이전에 이미 신인추천제를 시도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⁶⁾ 추천시가 처음 등장한 것은 『죽순』 6집이다. 여기에서 김요섭(金耀燮)의 「수풀에서」와 윤근필(尹根弼)의 「무지개」가 추천되고 있다. 심사위원의 선후평이나 추천소감 등은 실리지 않았다. 다만 6집 말미에 배치된 「원고모집」란에 “3회 이상 추천되면 준동인(準同人)으로 정하고 작품을 의뢰합니다”³⁷⁾란 문구를 통해 추천의 세부 규정을 강화하였다. 김요섭은 7집에 「바닷가」, 8집에 「애가」를 연속 추천받음으로써 3회 추천을 완료한다.³⁸⁾ 반면 윤근필은 7집의 <일반시단>란에 「고도의 밤」, 10집의 <일반시단>란에 「춤추며 오너라」를 싣고 있으나 추천을 완료하지 못했다.³⁹⁾ 『죽순』 10집은 최계락(崔啓洛)의 「고가촌상(古家寸想)」, 「무제(無題)」, 11집은 마산중학 5년 천상병(千祥炳)의 「공상(空想)」, 「피리」, 이화여중 5년 이명자(李明子)의 「조가(弔歌)」를 추천하고 있다. 이들 추천은 1회로 마감되는데, 그 이유는 11집 이후 더 이상 『죽순』이 발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죽순』

36) 해방 직후 경남·부산 지역에서 발간된 『낭만파』 3집(1947. 1, 62쪽)의 경우도 신인추천제를 실시했으며, 정지용, 이병기 등이 심사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순욱, 『광복기 경남·부산 시인들의 문단 재편 욕망과 해방 1주년 기념시집 『날개』』, 『비평문학』 43, 한국비평문학회, 2012, 208쪽 참고.

37) 「원고모집」, 『죽순』 6, 죽순시인구락부, 1947. 10, 59쪽.

38) 『죽순』 8집(1948. 3, 62쪽)의 「편집후기」에서 이윤수는 “3회나 계속 분지에 추천당한 김요섭군을 우리 시단에서 반겨 맞아줄 것을 믿으며 여기 소개하는 바다”라고 쓰고 있다.

39) 윤근필은 필명이 윤운강으로 경북 상주 출신이다. 그는 『죽순』 이후 1950년 1월 1일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시 「산맥아」가 입선되었으며, 한국전쟁 중 발간된 『전선시첩』 2집에 「서울아 나와 더불어 북으로 진격하자」를 발표하였다. 이후 대구야동 문학회 창립회원으로 참가하여 동시와 동화를 주로 발표하였다. 작품집 『꽃가마타고』(공저, 배영사, 1968)와 동시집 『꽃꽃』(일신사, 1976) 등을 발간하였다.

이 등단 제도로 신인의 경우 3회 추천을 고수한 것은 나름 시 동인지로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장』과 달리 추천위원을 밝히거나 선후평(選後評)을 게재하지 않은 것은 『죽순』의 신인추천제가 갖고 있는 한계로 볼 수 있다.

둘째, 일반 문학지망생과 학생들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일반시단>과 <학생시단>란을 설치했다는 점이다. 『죽순』은 2집(1946. 8. 15)부터 『투고규정』을 통해 “평론(시에 관한 것), 시, 소곡, 가요, 기타 시에 관한 것”⁴⁰⁾을 죽순편집실로 보낼 것을 공지하고 있다. 3집부터는 『투고규정』을 좀 더 구체화하였는데, 투고종목 : 평론, 시, 소곡, 가요, 기타 시에 관한 것(자작 미발표의 것), 각편 주소시명(住所氏名) 급(及) 종별명기(種別明記)할 것, 봉피(封皮)에 ‘일반투고’ 또는 ‘학생시단투고’라 부기(附記)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⁴¹⁾ 『죽순』 3집은 다른 면에 다음 호부터 <학생시단>을 설치한다는 투고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광고하고 있다.

다음 호부터는 『학생시단』을 설치코자 하오니 남녀 학생 제씨는 분발하여 투고하라. 학원문예의 성망(盛亡)은 우리 민족문학의 성망(盛亡)이다. 여러분은 민족문학의 기반이 되라. 투고규정은 일반과 같으나 성명과 학급을 명기할 것.⁴²⁾

그 결과 3집에는 <일반시단>란이, 4, 5집에는 <학생시단>란을, 7집에는 <일반시단>란과 <학생시단>란을, 8집에는 <학생시단>란을, 9, 10, 11집은 <일반시단>란과 <학생시단>란을 별도로 두고 있다. 죽순시인구락부는 해방 직후 시문학에 대한 취미와 열정을 가진 대구·경북지역 성인들이 모여 만든 문학단체였지만 그들의 매체였던 『죽순』을 동인들

40) 『투고규정』, 『죽순』 2, 죽순시인구락부, 1946. 8, 30쪽.

41) 『투고규정』, 『죽순』 3, 죽순시인구락부, 1946. 12, 41쪽.

42) 『학생시단설치』, 『죽순』 3, 죽순시인구락부, 1946. 12, 92쪽.

의 작품 발표 장으로만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당시 대구·경북 지역은 여타 지역보다 학생들의 문예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⁴³⁾ 『죽순』에 배치된 <일반시단>, <학생시단>란은 문학청년과 학생들의 시 창작 욕구를 자극하고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죽순』 11집에는 나중 시인으로 자리를 잡은 천상병(마산중학 5년), 나중 동화작가 이영희(李寧姬)가 된 이명자(이화여중 5년) 등이 학생의 몸으로 추천되기도 하였다.

셋째, 지역문인의 표상화 작업이다. 죽순시인구락부는 지역문인의 표상화 작업을 시도하였는데, 이상화 시비 건립과 매체 『죽순』의 상화시비 특집호 구성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상화는 대구에서 현진건, 백기만, 이상백 등과 동인작문집 『거화』를 시험하고 지역의 3.1운동에도 관여하는 한편, 1920년대 『백조』와 『문예운동』 등의 문학 매체에 다수의 작품을 발표한 작가이다. 이상화는 낭만주의와 계급주의 사이를, 조선과 일본, 대구와 서울을 넘나들면서 1920년대 문단의 중심인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이상화는 불행히도 1943년 43세의 나이로 유명(幽冥)을 달리 하였다. 물론 해방 직후 조선문학가동맹이 주도한 제1회 전국문학자대회(1946. 2.8-2.9) 둘째 날 참석 문학인들로부터 작고작가로서의 ‘추도의 묵상’⁴⁴⁾을 받으면서 이상화는 상징자본으로서의 시인으로서의 명성은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때까지 그를 기릴 시집 하나 출판되지 못한 상태였다.⁴⁵⁾ 이상화의 경우 시집 발간보다 기념비로서의 시비 건립이 먼저 추

43) 박용찬, 『해방기 대구·경북 지역 문학매체와 학생시단의 위상』, 『국어교육연구』 47, 2010, 277-298쪽 참고.

44) 홍구 편, 『건설기의 조선문학』,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 서기국, 1946, 218쪽.

45) 이상화의 아들 충희(忠熙) 씨는 “일경에 가택 수색을 당하는 바람에 당신의 시고(詩稿)를 압수당해 버렸다. 아버지는 평생 요시찰 인물이었다. 해방 후에는 입화가 선친의 시집을 출판하겠다고 하며 원고를 가져갔지만 월북하는 바람에 돌려받지 못했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김태완, 발굴인터뷰 『문인의 유산, 가족이야기』 ⑨ 시인 이상화의 후손들, 『월간조선』 2015. 8.

진되었다. 근대문인 최초의 문학비라 할 수 있는 상화시비(相火詩碑)의 건립은 죽순시인구락부 회원들에게 “대구가 낳은 시인 고 이상화씨의 시비를 죽순에서 세우면 어떨가”⁴⁶⁾라는 김소운(金素雲)의 제의로부터 시작되었다. 실제 시비 건립 과정과 제막식 와중에 김소운씨와 죽순시인구락부 회원 사이에 일부 이견이 노출되기는 했으나⁴⁷⁾ 상화시비는 김소운과 죽순시인구락부의 노력에 의해 세워졌다. 죽순시인구락부 회원들과 김소운이 중심이 되어, 상화시비는 박노아(朴露兒)의 식사(式辭), 청문협 대표로 서울에서 내려온 구상(具常)의 헌사(獻辭), 부산에서 온 유치환 등 300여명의 추모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1948년 3월 24일 달성공원에서 제막되었다. 기념비로서 상화시비가 세워진 다음 죽순시인구락부는 『죽순』 8집을 상화시비 건립 특집호로 꾸몄다. 『죽순』 8집의 상화화 관련 기획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지 - 상화시비 사진
- 내제지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일부
- 시 - 이상화, 『나의 침실로』
- 교유기 - 윤근강 - 『조춘시정(早春詩情)-상화와 고월과 나』
- 시 - 이상화, 『반딧불』
- 사진 - 상화시비 제막식 사진 화보
- 상화시비 건립 찬조자 방명(芳名)
- 축시, 헌시, 축전 - 구상 『헌사』
- 이운수 『헌시』
- 이정호, 성기원, 설창수, 『축전』
- 이운수, 『상화시비 건립 경과 보고 - 부(附) 제막기』

『죽순』 8집은 지역의 대표 시인이었던 이상화 시인을 호명하고, 기념

46) 이운수, 『상화시비 건립 경과보고 - 부(附) 제막기』, 『죽순』 8집, 1948. 3, 54쪽.
 47) 경과는 『죽순』 7집에 『고 이상화 시비 건립』이란 이운수의 글을 통해 이상화 시비 제막식, 재정문제 등에 대해 간략히 보고된 바 있다.

하는 편집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인 시인들의 투고 작품 외에, 『죽순』 8집은 표지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이상화 시인과 관련된 시와 시비 건립 관련 내용으로 채워졌다. 작고작가인 이상화를 기억에서 불러내는 방식은 시집 발간, 시비 세우기, 잡지 특집, 학술 연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죽순시인구락부는 기념비인 상화시비 건립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이상화 시인 관련 내용을 『죽순』 특집호로 기획, 홍보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시비는 기념물의 한 형태로 시인이 갖고 있는 상징자본을 대중들에게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 물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이상화 특집호로 구성된 인쇄 매체인 『죽순』은 그것을 이동시켜 대구·경북 지역이란 장소를 넘어서게 하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죽순시인구락부는 시비와 매체를 이용해 지역의 작고(作故) 작가이자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시인 이상화를 지역의 대표시인으로 표상화 시키고자 하였다. 이들은 「나의 침실로」가 새겨진 상화시비를 『죽순』 8집의 표지로 삼았으며, 이후 복간된 18집(1984. 4)에서도 ‘상화시비 건립 35주년기념 시비 탁본’을 표지로 내세운 바 있다. 이상화 시인 관련 사업은 이후 『죽순』지에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죽순』 18집의 편집후기는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⁴⁸⁾ 이를 통해 볼 때, 죽순시인구락부는 『죽순』 복간 후에도 이상화 시인 추모제를 결들인 시비 건립 기념식 개최, 상화시비 탁본 사업을 통해 『죽순』 8집이 시도한 바 있

48) 「편집후기」, 『죽순』 18, 죽순시인구락부·죽순문학사, 1984. 4, 282쪽 참고.

“▷항일민족시인 이상화님이 작고한지 40주기로 따라 대구 달성공원에 우리 문단 최초로 상화시비가 세워진 지 35주년을 맞게 되어 죽순시인구락부 주최로 지난 83년 3월 19일 오후 2시 그의 시비 앞에서 추모제에 결드려 시비건립 기념식을 유족을 비롯 대학총학장 및 유지와 후진 문인들과 상화 제자들의 모임인 태백구락부 회원 등, 이밖에 60여명의 경북여고 백합합창단의 참여로 한층 뜻깊게 한 이 행사의 광경과 상화 시인에 관한 여러 가지 사진과 참고자료 등을 화보에 담았다. 이 자리를 빌어 그날 추모제 때 물심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시비 탁본을 원형 대(原型 大)와 축쇄판 2종으로 영인, 뜻 있는 분들에게 배포했으며, 1/2대(大)는 18집 부록으로 배포한다.”

던 표상화 작업을 다시 소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4년 2월 29일까지의 「상화시비 탁본대(拓本代) 불입자 방명(芳名)」⁴⁹⁾을 보면 이주홍을 포함해 43명의 문인이 탁본 사업에 참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죽순 시인구락부의 경영난 타개의 한 방편이기도 했겠지만 이상화 시인을 지역의 대표시인으로 표상화 하고자 하는 작업의 하나였음을 보여준다.

넷째, 시조에 대한 관심과 시조 발표 지면의 지속적 유지이다.

죽순시인구락부에 모여든 동인들은 처음부터 시, 그중에서도 현대시에 관심을 가진 시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시 작품만을 실었던 『죽순』 창간호를 보면 17인의 필자 중 이영도, 이병화, 이호우 등 3인의 시조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임시중간호까지 합한 12권의 『죽순』에 시조가 한 번도 누락 없이 실렸다는 것은 『죽순』 편집진들이 시조의 중요성을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죽순』 2호부터는 ‘차례’에서 시와 시조를 구분하여 배치하는 등 시조 부문에 대한 배려가 남달랐음을 보여준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죽순시인구락부 초기부터 관여했던 이호우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호우는 박목월과 함께 죽순시인구락부에 영향을 미친 주요 동인(同人)이다. 『죽순』이 순수시를 중심으로 한 현대시 동인지였지만 『죽순』에서의 이호우의 위상을 생각할 때 현대시조의 지면 배치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북 청도 출신인 이호우는 해방 직후 대구 대봉동으로 이사, 대구고등법원 재무과장, 적산(敵産)인 문화극장의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는가 하면 대구일보 편집과 경영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후 그는 1949년 남로당 관련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는 고난을 겪기도 했으나 한국전쟁 이후에는 대구매일신문 편집국장,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이호우는 해방공간 대구에서 발간된 아동잡지인 『아동』, 『새싹』, 부산의 『낭만파』, 진주의 『영문(嶺文)』 등에 시조 작품을 투고하는 한편, 임시중간호를 포함한 12권의 『죽순』에 줄곧 31편의 시조와 평론 「시조의 본질」을 발표하

49) 「상화시비 탁본대(拓本代) 불입자 방명(芳名)」, 『죽순』 18, 1984. 4, 276쪽.

였다. 이호우는 해방 직후 『죽순』 동인 활동을 통해 본격적인 시조시인으로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⁵⁰⁾ 『죽순』의 시조란에는 이호우와 그의 누이동생 이영도를 포함해 5명의 시조시인이 쓴 52편의 시조 작품이 발표되었다. 이호우는 평론 『시조의 본질』에서 시조가 오랫동안 널리 애송된 까닭을 전 국민이 공감할 보편성에서 찾았는데, 이것 또한 김동사가 말하던 ‘예술성, 영원성, 민족성’과 크게 거리가 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호우는 민족시로서 시조가 갖는 위상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현대시조를 『죽순』의 ‘시조란’을 통해 발표하였던 것이다.

4. 『죽순』 이후, 그리고 『전선시첩』

1946년 5월 창간된 『죽순』은 1949년 7월, 11집 발간으로 그 막을 내렸다. 순수시를 표방했던 동인지 『죽순』이 4년 이상 유지된 것은 발간 주체였던 이윤수의 노력에 힘입은 바 컸다. 그러나 1950년 시작된 한국전쟁으로 인한 용지난, 자금난, 인적 모임의 한계 등은 한 개인이 중심이 되어 발간되던 『죽순』의 지속적 발행을 가로막았다고 할 수 있다.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형성되던 피난문단은 중앙의 문인들과 지역의 문인들을 혼효시켜 지역문학 장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했다. 대구지역에 육군본부, 공군본부가 자리하면서 대구는 낙동강 전선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전쟁수행의 기지가 되었다. 그 결과 임시수도가 자리한 부산에 비해 대구는 자연스레 전선문학 중심의 전선문단이 형성되었다. 육군중군작가단이 발행한 『전선문학』, 문총구국대가 기획한 『전선시첩』, 공군중군문인단의 『창공』과 공군본부 정훈감실에서 펴낸 『공군순보』 등이 모두 대구에서 발간되었다. 대구의 문인들은 문총구국대 경북지대를 조

50) 이호우의 시조 세계와 『죽순』지의 작품활동에 대해서는 박용찬, 『이호우 시조의 공간과 매체』, 『한국현대시의 정전과 매체』, 소명출판, 2011, 76-101쪽 참고.

직하였고 지대장은 한술 이효상이 맡았다. 사무실은 지역의 극장인 만경관이 있던 건물에 두었다. 이윤수가 중심이 된 죽순시인구락부 회원들은 전선문단으로 이동하여, 대구에서 발간되던 전선매체인 『전선시첩』에 자연스럽게 가담하게 되었다.

『전선시첩』의 1집을 일선에 보낸 것이 작추(昨秋)이었다. 그 당시의 전세(戰勢)는 대구방어선을 위시로 각 전선에 방어태세의 완벽을 기하고 북진을 고대할 때였다. 이어서 제2집이 나왔고 이제 또 다시 제3집을 역시 대구에서 내놓게 되었으니, 이 북진의 시첩과 더불어 우리는 다시 실지(失地)를 회복하고 전진할 것이다.⁵¹⁾

위의 글은 한국전쟁 기간 중 대구에서 『전선시첩』 1, 2, 3집이 발간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문충구국대의 기획 아래 『전선시첩』 1집과 2집은 실제 발간되었으나, 3집은 그 당시 출판되지 못하였다. 3집의 경우 원고까지 수합되고, 이선근의 「서문」까지 준비되었으나 30여년이 지나서야 당시 수합된 원고를 간직하고 있던 이윤수에 의해 1984년 1, 2, 3집 합본 형태로 대구의 학문사에서 발간되었다. 1집은 1950년 문충구국대 편집으로, 국방부 정훈국에서 발행하였으며, 2집은 1951년 이윤수 편집으로, 문충 경북지대의 이름으로 발간되었다. 서문(序文)의 경우 1집, 3집은 국방부 정훈국장 이선근이 썼다. 그러나 2집만은 문충구국대 경북지대장이었던 이효상이 서문을 쓰고, 「후기」는 편자인 이윤수가 쓰고 있음이 주목된다. 2집의 필진을 나열해 보면 이효상, 이용상, 김사엽, 신동집, 김진태, 이윤수, 김동사, 최광렬, 라운경, 윤운강 등인데, 이들 대부분은 『죽순』에 관여했던 인물들이다. 『전선시첩』 2집은 처음부터 온전히 대구지역 문인들인 문충구국대 경북지대원들의 힘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⁵²⁾ 『죽순』의 대표이자 발행 겸 편집인이었던 이윤수가 원고 수

51) 이선근, 「서문」, 『전선시첩』 3, 이윤수 편, 『전선시첩』, 학문사, 1984, 146쪽.

52) 『전선시첩』 1집의 필진은 서정주, 조지훈, 박목월, 구상, 김기완, 이효상, 이윤수,

합, 편집, 『후기』까지 관여했다. 『전선시첩』 2집은 문충 경북지대의 이름으로 발간되었으나, 이윤수가 중심이 된 『죽순』의 전시판 매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래는 죽순시인구락부에 처음부터 참가하였던 최해룡(崔海龍)이 쓴 『행군』이란 시이다.

무한한 공간 아래 말없이 걸어간다
 목청 좋은 전우가 군가를 부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절로 목이 메어져라 따라 부른다
 저 멀리 아득히 보이는 치악령을 넘어서면
 빛나는 무용전(武勇傳)을 이룰 포탄의 결전장
 향시
 머리 위에 인 푸른 하늘은 어버이처럼 후덕하며
 발을 붙여 걷는 땅은 어머니처럼 인자하다
 지금 우리는
 무수한 먼 조상들의 발자욱을 따라
 북으로 북으로 찬란한 역사를 비춰며⁵³⁾ 나아간다
 진정 이 찰나의 존재가 역년의 생명을 지닌 날을
 내 스스로 굳게 믿으며
 다만 소처럼 걸어만 간다……⁵⁴⁾

최해룡은 『죽순』 동인으로, 1931년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 1933년 니혼(日本)대학 예과, 1941년 니혼대학 법문학부 예술과를 졸업한 인물이다.⁵⁵⁾ 앞서 살펴본 박목월의 회고에 니혼대학 예술과 출신인 최해룡이 호명되고 있음을 볼 때, 최해룡이 니혼대학 예술과 출신이란 것이 동인

이호우, 김윤성, 박화목 등인데, 1집에도 서정주, 김기완을 제외하면 모두 『죽순』에 작품을 발표한 바 있는 시인들이다. 3집의 경우도 대구지역 이외의 시인들과 현역군인들이 일부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이윤수, 박목월, 김요섭, 최해룡, 이응창 등 죽순시인구락부 회원들이 주된 필진을 이루고 있다.

53) 『죽순』 복간호(1979. 봄), 100쪽에는 “비춰며”가 “빛으며”으로 되어 있다.

54) 최해룡, 『행군』, 『전선시첩』 3, 이윤수 편, 『전선시첩』, 학문사, 1984, 252-253쪽.

55) 학력사항은 1952년 10월 최해룡이 쓴 이력서를 참고한 것임.

들에게 나름 깊은 인상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1년 니혼대학 예술과를 졸업한 최해룡의 동기로 시인 함윤수를 들 수 있다. 1938~39년경 경성과 함북지역을 배경으로 발간된 시 전문지 『맥(鬮)』에 작품 발표를 하기도 했던 함윤수는 니혼대학 졸업 이전에 시집 『앵무새』(삼문사, 1939)와 『은하식물지』(장학사, 1940)를 이미 간행한 바 있는 시인이었다. 니혼대학 예술과를 중퇴하거나 거쳐간 문인으로 시인 김춘수나 아동문학가 윤복진 등도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니혼대학이 문학, 미술 같은 예술적 분위기에 젖어 있던 학교였음을 알 수 있다. 함윤수와 교우관계가 있었던 최해룡은 해방 직후 죽순시인구락부에서 문학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죽순』 창간호에 시 「춘수(春愁)」, 2집에 「혜순(惠順)에의 시」를 발표한 바 있다. 해방기의 최해룡은 죽순시인구락부 동인으로서의 활동 외에 대구시보사, 부녀일보사 등의 편집부 같은 언론 방면에 주로 종사하였다. 최해룡의 이력서를 보면 그는 한국전쟁 당시 종군작가로, 국방부 정훈국 소속 전국문화단체총연맹 경북지대 조직부장을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국방부 편수관으로 육군본부 전사감실(戰史監室) 등에 근무하였다.⁵⁶⁾ 최해룡은 『전사(戰史)』 3집(육군본부 전사감실, 1951. 12. 15)에 시 「건설보」를, 『전선시첩』 3집에 종군시 「행군」을 발표하였다.

『전사』 3집에 실린 시 「건설보(建設譜)」에서 화자는 “아우와 누나를 형과 내 부모를 내 안해와 내 남편을/ 그리고 모든 재산과 집과 세간을/ 송두리째 앗아간 뒤 타다남은 깃더미 폐허 위에”⁵⁷⁾서서 생명의 고동과 건설의 새역사를 노래하고 있다. 반면 『전선시첩』 3집에 실린 「행군」은 「건설보」에 비해 보다 정제된 형식과 리듬을 구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직접 종군에 참여한 창작주체의 감정과 내면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전선시첩』 3집에 실린 시들은 발간 주체였던 이윤수에 의하면 “9·28 수복을 전후한 때와 또 중공군 개입으로 작전상 가

56) 최해룡이 1952년 10월 쓴 이력서에 나타난 니혼(日本) 대학 졸업 후의 직력(職歷)에 의함.

57) 최해룡, 「건설보」, 『전사』 3, 육군본부 전사감실, 1951.12, 35쪽.

슴 아픈 1·4 후퇴를 아니할 수 없었던 전황(戰況) 속에서 쓴 작품들”⁵⁸⁾이라 한다. 『행군』 또한 이러한 종군시의 일종이다. 화자는 전선을 따라 북으로 진군하는 군인들과 함께 행군하고 있는데, 시 전체는 승리에 대한 기대와 낙관적 전망으로 가득 차 있다. “걸어간다”, “부른다”, “나아간다”, “걸어만 간다”에 반복되는 진행형 동사는 행군의 주체들이 걸어가는 길이 망설임과 좌절의 길이 아니라 하늘과 대지의 축복 속에 새로운 역사를 빚어내는 승리의 길임을 보여준다. 이들의 앞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으며, “포탄의 결전장”마저 “빛나는 무용전(武勇傳)”으로 승화된 다. 밝고 경쾌한 발걸음으로 주저도 없이 “소처럼 앞으로 걸어만 가”는 행군의 당위성은 화자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가능하다. “진정 이 찰나의 존재가 억년의 생명을 지닌 날을/ 내 스스로 굳게 믿으며”란 시구는 현재의 순간성이 영원으로 초월되는 주관적 원망(願望)을 보여준다.

최해룡의 『행군』 이외에, 2집에 실린 이윤수의 『북으로 가자』, 윤운강의 『서울아 나와 더불어 북으로 진격하자』와 3집의 이윤수의 『보병진군』, 박두진의 『싸우며 나가리』 등이 모두 북으로의 진격 내지 행군을 통한 애국심 고취와 싸움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제시해 보이고 있다.

썩썩한 군가를 소리높이 부르며 전선으로 전선으로 출진하는 용사들의 모습들— 단 하나인 조국을 위하여 일선에서 전전분투(轉戰奮鬪)하는 용사들은 피끓는 가슴들을 열고, 가도 가도 눈, 눈 속에서 조국과 민족의 이름 아래 치열히 싸우고 있다. 이러한 때 시인들은 어떠한 결의를 가지며 어떠한 행동을 하여야만 되겠다는 것을 새삼 말하지 않기로 하겠다. 지금이야 그의 가부를 논할 여유도 없다. 이 심대한 고난과 슬픔에서 다만 성스러운 한 줄기의 강렬한 ‘빛’ 속을, 대열을 지어 앞으로 앞으로 가야만 한다.⁵⁹⁾

58) 이윤수, 『후미(後尾)』, 이윤수 편, 『전선시첩』, 학문사, 1984, 276쪽.

59) 이윤수, 『편집후기』, 『전선시첩』 2, 문충경북지대, 1951, 98쪽.

이윤수의 말처럼 이들 시는 조국과 민족의 이름 앞에 “성스러운 한 줄기의 강렬한 빛”을 향해 나아가는 향일성(向日性)을 지향하고 있으며, 시적 화자는 조국과 민족에 자신을 바친다는 당위에 대한 신념과 전쟁 수행에 대한 숭고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

문제는 『전선시첩』에 실린 시들이 죽순시인구락부 동인들이 시에 대해 가졌던 생각 내지 시적 경향과는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선시는 전쟁의 낙관적 전망 내지 승리, 싸움터에 나선 전사들의 위무(慰撫)에 그 목적이 있다. 국가주의에 입각한 전선시는 시의 본질인 예술성의 영역에 머무르기보다功利성(功利性)에 입각한 목적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순수시 또는 순수서정시를 시의 본질로 간주하고 있던 『죽순』 동인들에게 이러한 시 창작원리는 적격이 아닐 수 있다. 여기서 『죽순』의 이윤수나 김동사, 조향의 시론에 밀바탕이 된 조지훈의 순수시(민족시)론을 다시 한 번 가져올 필요가 있다. 민족, 정치 같은功利성 이전에 시가 먼저라는 것, 그러나 “순수는 무사상(無思想)의 것이 아니라 시를 예술시키는 사상이 아니고 순화(純化)된 사상이면 다 순수시가 될 수 있다”⁶⁰⁾는 주장 말이다. 조지훈은 민족을 사랑하든 정치를 선전하든, 그 말하고자 하는 사상이 시 속에 혈액화될 때 비로소 그 사상을 예술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어떠한 사상이라도 그것이 순화될 때 시대성, 선전성, 계몽성은 저절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 본 것이다. 물론 『전선시첩』에 실린 『죽순』 동인들의 시가 전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북으로 가는 대열에서 자신의 내면풍경을 차분히 드러내 보인 최해룡의 『행군』이나 『전선문학』 창간호(1952. 4)에 발표된 이호우의 『깃발』 같은 시는 순수시를 쓰던 죽순 동인들이 종군시를 쓰는 시인으로 이동되어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직설적인 주의, 주장이나 노골적인 개념어의 나열 없이도 이러한 시는 하나의 “수류탄” 내지 “야포”⁶¹⁾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선시첩』 2집에 실

60) 조지훈, 『해방시단의 과제』, 『조지훈전집 3- 문학론』, 나남출판, 1996, 224쪽.

린 이윤수의 말을 빌리면 “신념의 탄환”⁶²⁾으로 시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여명』 창간호(1925. 7)에 지역 태생의 작가였던 현진건이 『향토문학을 일으키자』라는 논설을 쓴 바 있다. 그 이후 1920~30년대 대구지역에 『여명』, 『동성』, 『문원』 등의 문예잡지가 있었지만 대구지역에서의 지역문학의 발흥은 『죽순』에 이르러서야 그 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죽순』은 1946년 창간되어 해방 4년 동안 12집이나 발간되었으며, 1979년 봄 복간호를 낸 이후에도 현재까지 발행을 계속하고 있는 대구지역의 대표적 시 동인지이다. 『죽순』은 중앙과 대타적인 지점에서 지역문학의 성과를 보여준, 해방기 대구지역의 시문학에 대한 열망을 제대로 수용해 나간 매체였다. 죽순시인구락부, 죽순시사, 죽순문학회 등의 이름으로 간행된 『죽순』은 반세기 넘게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대구지역의 순수시 동인지로 그 자리를 잡았다. 이후 대구지역이 순수시가 성행한 도시로 자리잡는 데에는 김춘수, 신동집 등의 활동 못지않게 『죽순』이 끼친 영향력 또한 컸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해방기에 발간된 『죽순』을 대상으로 『죽순』지의 탄생과정, 『죽순』의 위상과 매체적 전략, 한국전쟁기 『죽순』 동인들의 전선문단 참여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죽순』은 이윤수, 이호우, 박목월 등 대구지역 시인들 외에 유치환, 김춘수, 조지훈, 박두진, 설창수, 조향 등 대구 바깥의 유명 시인들도 참가시켜 필진의 위상을 높였다. 『죽순』은 출발부터 좌익 진영과 거리를 두고 출발하였는데, 『죽순』에 수록된 시나

61) 최득건, 『창간사』, 『전선문학』 창간호, 육군본부 중군작가단, 1952.4, 9쪽.

62) 이윤수, 『편집후기』, 『전선시첩』 2, 문충경북지대, 1951, 98쪽.

시론을 통해 『죽순』이 크게 순수시나 ‘민족시’의 큰 자장 안에 머무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죽순』이 떨리는 시문학과인 박용철의 순수시론, 가까이는 해방 직후 청문협이 조지훈 시론의 영향 아래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죽순』의 경우 순수시를 지향한다는 것 외에 동인들을 묶어줄 뚜렷한 이념이나 모토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것이 제한된 필진을 넘어 외부 필진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게 하는 기능을 하기도 했지만 매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지역 매체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죽순』은 다양한 기획과 편집 전략을 구사하였다. 매체 전략으로는 첫째, 신인추천제를 실시하여 김요섭, 최계락, 천상병, 윤운강 등의 시인을 등단시켰고, 둘째, 일반 문학지망생과 학생들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일반시단과 학생시단란을 설치했으며, 셋째, 지역문인의 표상화 작업을 시도하여 이상화 시비 건립과 상화시비 특집호를 발간했으며, 넷째, 시조에 대한 관심과 시조 발표 지면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한국전쟁기에 발간된 『전선시첩』에 『죽순』 동인들의 작품이 많이 수록되었다. 특히 문충구국대 경북지대의 이름으로 나온 『전선시첩』 2집은 『죽순』의 전시판 매체라 할 수 있었다. 죽순시인구락부의 대표였던 이윤수가 『전선시첩』 2집의 발간 주체로 원고 수합, 편집, 「후기」까지 관여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증빙해 준다. 『전선시첩』에 실린 시들은 순수시를 지향했던 시인들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전선시로 이동해 가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텍스트

- 『죽순』 1-11집, 죽순시인구락부, 1946-1949.
『죽순』 임시증간호, 죽순시인구락부, 1947.
『죽순』 복간호, 죽순시사, 1979 봄.
『죽순』 18집, 죽순시사, 1984.,
문충구국대 편집, 『전선시첩』 1집, 국방부 정훈국, 1950.
이윤수 편집, 『전선시첩』 2집, 문충경북지대, 1951.
이윤수 편, 『전선시첩』, 학문사, 1984.

2. 참고 논저

- 강민희, 「문학동인지의 지역성과 스토리텔링 가능성 연구」, 『어문학』 135, 한국어문학회, 2017, 185-208쪽.
강호정, 「해방기 동인지 『죽순』 연구」, 『한국문학논총』, 69, 한국문학회, 2015, 127-157쪽.
김준현, 「순수문학과 잡지 매체-청년문학가협회 문인들의 매체 전략」, 『한국근대문학연구』 22, 한국근대문학회, 2010, 59-84쪽.
노춘기, 「해방기 조향의 시적 지향-동인지 『낭만파』와 『죽순』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48, 2015, 261-288쪽.
박민규, 『해방기 시론의 구도와 동력』, 서정시학, 1914, 269-270쪽.
박용찬, 「이호우 시조의 변모와 매체」, 『시조학논총』 32, 2010, 35-60쪽.
박용찬, 「해방기 대구·경북 지역 문학매체와 학생시단의 위상」, 『국어교육연구』 47, 국어교육학회, 2010, 277-298쪽.
박용찬, 「출판매체를 통해 본 근대문학 공간의 형성과 대구」, 『어문론총』 55, 한국문학언어학회, 2011, 35-60쪽.

- 박태일, 『한국지역문학 연구』, 소명출판, 2019.
- 송영목, 「해방기 『죽순』지의 시세계」, 『비평문학』 7, 한국비평문학회, 1993, 102-127쪽.
- 시문학사 편찬, 『박용철전집』 제2권, 동광당서점, 1940.
- 이순욱, 「광복기 경남·부산 시인들의 문단 재편 욕망과 해방 1주년 기념시집 『날개』」, 『비평문학』 43, 한국비평문학회, 2012, 189-226쪽.
- 조섭제, 『대학국어 현대국문학수』, 행문사, 1948.
- 조지훈, 『조지훈전집 3- 문학론』, 나남출판, 1996.

<Abstract>

A study on the status and the movement to
war media 『Geonseon-sichup』 of
『Jook-soon(Bamboo shoot)』, a literary
coterie magazine in the Liberation Period

Park, Yong-Cha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birth and its media characteristics of Jook-soon(Bamboo shoot), a poetic media in Daegu region. Until now, research on Jook-soon has often been limited to criticism of the impression of the work or a general introduction to the Jook-soon participant. This is related to the fact that most of the discussions are centered on the pride and retrospective of the participating writers of Jook-soon. As a result, the full appearance and characteristics of Jook-soon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have not been properly identified.

To solve these problem, this study attempted to pay attention to the human resources, Jook-soon participant and Jook-soon as a poetic medium, a physical representation they created. Jook-soon showed the achievements of local literature against the central literature. This was a medium that accepted the desire for poetry literature in Daegu region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Jook-soon started with a distance from the socialist camp at the beginning of departure. Through the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oets and poems in Jook-soon, I could be sure that Jook-soon largely stayed in the big influence of pure poetry or national poetry. Meanwhile, Jook-soon used various planning and editing strategi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local media. The media strategy is as follows. First, a budding writer recommendation system was implemented to take the platform poets such as Kim Yo-seop, Choi Gye-rak, Cheon Sang-byeong, and Yoon Un-gang. Second, general poetry sections and student poetry sections were installed so that adults and students aspiring literature could present their works. Third, they attempted to represent local writers. one is to build Lee Sang-hwa's literature monument, the other is to make Lee Sang-hwa special media. Fourth, they continuously secured space for presentation of modern Sijo in the media.

Finally, this study dealt with Geonseon-sichup(A collection of poems about war) issued during the Korean War as edition of media about war of Jook-soon. In particular, Jeonseon-sichup shows how poets who participated in Jook-soon move to the war literary group.

Key Words: 『Jook-soon(Bamboo shoot)』, Jook-soon poets club, media strategy, regional literature, literary coterie magazine, Daegu, representation, pure poetry, 『Geonseon-sichup』

■ 논문접수 : 2022년 03월 31일

■ 심사완료 : 2022년 04월 20일

■ 게재확정 : 2022년 04월 21일

